

“대화 먼저...” 광주법원 조정센터 ‘전국 1위’

법원행정처, 작년 최우수 기관 선정
서재문 조정위원 처장 감사장 받아
황진희 고법판사는 ‘문예상’ 겹경사

광주법원 조정센터가 지난해 조정 성공 능력을 인정받아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7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우수 조정센터 포상과 조정위원 감사장, 법원사람들 문예상 전수식을 가졌다.
우수 조정센터 포상은 광주고법이 운영하는 광주법원 조정센터가 지난해 탁월한 조정 성공률을 달성한 것과 제도 발전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법원행정처로부터 우수 센터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센터는 전국 각급 법원 산하에 있으며 분쟁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양해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광주법원 조정센터가 지난해 조정 성공 능력을 인정받아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왼쪽부터 설범석 광주고등법원장, 박병철 조정센터장, 양영희 수석판사.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간 조정이 이뤄지거나 재판부의 권고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특히 서재문 조정위원은 가족 간 분쟁 사건에서 다툼의 원인이 된 부동산을 현지답사하고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님의 유지를 강조하며 형제 간 화합을 유도하는 등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 결과 1건의 조정 성립으로 전국 각급 법원에 있던 5건의 별도 소송을 모두 취하 및 종결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서 위원은 전대법원행정처장 명의의 감사장을 별도로 받았다.
서재문 위원은 “가장 좋은 판결보다 가장 나쁜 조정이 낫다는 말처럼 가족 간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해 형제 간 우애까지 지킬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병철 센터장은 “올해도 변함 없이 당사자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조정에 임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당사자들이 일상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진희 고법판사는 지난해 법원 홍보지인 ‘법원사람들’에 기고한 수필을 통해 구성원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법원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문예상을 수상했다. /안재영 기자



이정선 市교육감, 공무원시험 합격 학생 격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8일 본청 상황실에서 ‘2025년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격려했다.
2025년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국가직 19명을 비롯해 지방직 5명, 군무원 4명 등 28명이다.
시교육청은 합격생들의 사례를 후배 학생 진로 지도에 활용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공직 진출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처음으로 도입한 ‘상업계고 우수 인재 전형’을 통해 교육행정직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된 광주여상 김보경 학생은 “학교에서 공무원 대비반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줘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며 “직업계고 출신 1호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댄 여러분의 도전과 성취가 후배 직업계고 학생들의 공직 진출길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SK텔레콤, 신안 저소득 아동 휴대전화·요금 지원

신안군은 지난 7일 SK텔레콤과 신안군가족센터에서 “2026년 SK텔레콤 사회공헌(이동통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아동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특히 보호자와 소통이 어려운 아동이나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연락이 필요한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SK텔레콤은 드림스타트 대상

만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 28명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고, 12개월간 통신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순한 통신 지원을 넘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지역 사회와의 나눔 활동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양훈 기자

광주 남부경찰, 졸업식 후 청소년 일탈 예방 캠페인

광주 남부경찰서는 8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동아리중학교를 찾아 졸업식 이후 청소년 일탈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캠페인에서는 졸업식 후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일탈 행위와 도박 등 각종 중독범죄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사전 예방에 힘썼다.
김종득 남부서장은 “졸업과 방학은 청소년에게 설렘을 주는 시기이면서 일탈 위험도 높아지는 때”라며 “청소년들이 방학기간 중 건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독범죄 예방 홍보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보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인천호남향우회 신년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환영”

전남도는 8일 인천제일고 대강당에서 열린 ‘26년 인천호남향우회 신년 인사회’에서 고향사랑 실천 도정설명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오명석 인천호남향우회 회장,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총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고향사랑기부제’를 중심으로 한 도정 홍보 등을 설명해 향우들과의 유대를 강화했고 올해도 변함 없는 고향사랑 실천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대한 향우들의 큰 관심과 응원이 이뤄지는 등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총회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지역 생존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적인 320만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도록 1천300만 향우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오명석 인천호남향우회 회장도 “고향 호남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조진형 (주)이룸바이오 대표, 여수에 고향사랑기부

여수시는 8일 “전남 조진형(사진 오른쪽서 두 번째) (주)이룸바이오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주)이룸바이오는 의료용 살충제를 제조·납품하는 차세대 에코 스타트업 선도기업으로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 기탁에 이어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했다.

조진형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여수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작게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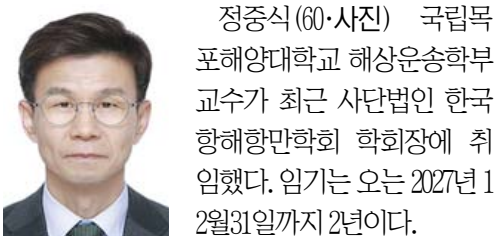
담양군, 새해 ‘마을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

담양군은 8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전일부터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6년 마을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민과의 대화는 군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군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7일 담양읍 객사·담주·천변리 등 마을회관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앞으로 약 2개월간 12개 읍·면 35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예정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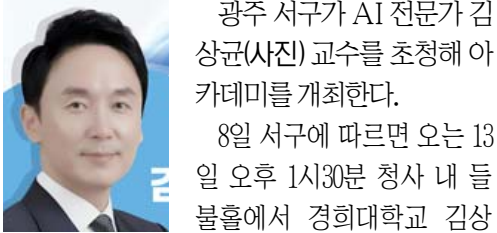
듣고 이를 수렴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정중식 목포해양대 교수 한국해양항만학회 회장 취임



정중식(60·사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교수가 최근 사단법인 한국해양항만학회 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2년이다.
한국해양항만학회는 1976년 한국해양학회로 시작, 2002년 항만물류 분야의 학술연구·산업발전을 위해 한국항만학회와 통합했다. 현재 선박운용과 시스템, 해상교통 안전, 항만 운영과 인프라 및 물류 등 항해·항만 분야 학술 진흥에 기여해 오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해양과학기술협의회 소속으로, 매년 6개 해양 관련 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해양과학기술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함께 기술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이밖에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아시아 항해국제회의(Asia Navigation Conference, ANC)를 매년 개최하고, 세계항해학회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titutes of Navigation, IAIN) 총회를 유치하기도 했다.
정중식 학회장은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첨단 해양교통과 스마트 항만물류 분야에서 신기술 연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양산업계와 모든 회원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목포=정해진 기자

서구, AI 전문가 김상균 교수 초청 아카데미



광주 서구가 AI 전문가 김상균(사진) 교수를 초청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8일 서구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1시30분 청사 내 들불홀에서 경희대학교 김상균 교수를 초청해 ‘AI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주제로 제12회 서구 아카데미를 연다.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AI 비즈니스’를 강의하고 있는 김 교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삼성인력개발원 등 공공·민간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번 강연에서 김 교수는 AI와 메타버스 등 복잡한 개념을 일상생활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발전 속에서 인간의 역할과 대응 전략을 현실감 있게 강연할 계획이다.
서구 아카데미 참여는 서구청 누리집 통합예약서비스 또는 전화(062-360-776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연상 기자



광주대 유아교육과 동아리 ‘상상’ 자체 제작 그림책 어린이집 기부

광주대학교는 8일 “지난 6일 유아교육과 그림책 동아리 ‘상상’이 위탁운영 어린이집 9곳에 그림책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림책 동아리 ‘상상’은 지난해에 이어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자체 그림책을 제작·출판했으며, 학생들이 기획 단계부터 내용 구성, 표현 방식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완성했다.
김세루 지도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제작한 그림책을 위탁운영 어린이집에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교육과 그림책 동아리 ‘상상’은 그림책 재능기부 활동 외에도 지역 내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 중심의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박선욱 기자

부음

▲강성추씨 별세, 한근고(KIA 타이거즈 육성팀 프로)씨 부부상=발인 9일(금) 광주 VIP장례타운 VIP 2호호실(062-521-4444).